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성격유형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미옥
송호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Grit and Personality Type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Mi Ok Yu
Department of Nursing, Songh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학업과 임상실습을 진행하며 겪게 되는 대학생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그릿과 성격유형을 통해 중재 전략을 마련 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C지역과 K지역 간호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1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 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 정도는 3.23점(5점 척도), 대학생생활 적응 정도는 3.05점(5점 척도) 이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별 빈도와 정도는 A type이 69명으로 27.12점(10-40점) 이었고, B type은 61명으로 18.79점(10-40) 이었다.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대학생생활 적응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7, p<.001$), 간호대학생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선택 동기 중 취업률($\beta=-.24, p=.009$), 전공만족도 중 만족($\beta=.21, p=.02$)과 그릿($\beta=.29, p=.001$)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대학생생활 적응을 23.0% 설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생활 적응을 위한 그릿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지기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an intervention strategy by considering grit and personality type for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during college life adaptation that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academic and clinical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July 30, 2022, enrolling 130 nursing students from the 1st to 4th grades in C and K area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 program. Analysis using the 5-point scale revealed the degree of grit to be 3.23 points and the degree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was 3.05 points. In addition, the frequency and degree of each personality type were 27.12 points (10-40 points) comprising 69 type A subjects, and 18.79 points (10-40 points) for 61 type B subjects.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adaptation to college life ($r=.37, p<.001$). The factors as motives for major selection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were employment rate ($\beta=-.24, p=.009$), satisfaction of the major selected ($\beta=.21, p=.02$), and grit ($\beta=.29, p=.001$). These factors were found to explain 23.0% of the variance in college life adjus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improves the grit level for th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should be developed.

Keywords : Grit, Personality Type, College Life, Adjustment,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Mi Ok Yu(Songho Univ.)

email: miok732000@songho.ac.kr

Received February 6, 2023

Accepted May 12, 2023

Revised March 17, 2023

Published May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생애주기 중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학업과 진로를 위해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인간관계 형성 등 새로운 경험에 대처해 나가게 된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학과 특수성으로 많은 양의 학업, 임상실습, 국가고시에 대한 압박감을 경험하며 본인의 목표를 향해 대학생활을 진행하는데,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간호학과의 높은 취업률, 선생님이나 부모의 권유, 전문직,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생활 및 임상실습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3].

간호대학생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를 통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나 학과 특성으로 인한 과다한 학습량, 국가고시 준비, 3·4학년에 진행되는 임상실습과 관련된 임상현장의 두려움, 지식과 기술 부족, 고통 받는 대상자 돌봄 등의 경험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4]. 이러한 이유로 신입생뿐만 아니라 고학년이 되어서도 휴학, 자퇴, 전과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 극복력, 전공선택 동기, 그릿 등은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5-7].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해 Bono[8]는 교육적 특성보다 사회적·심리적 속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고, 특히 Duckworth 등[9]은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와 역경을 겪어도 오랜 시간동안 결심과 동기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Bowman[10]은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고 심리적 소진감이 낮은 학생들이 그릿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그릿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일관된 끈기와 열정으로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한 일관된 관심과 노력이며[11], 그릿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12]. 따라서 개인의 긍정적 사회·심리 속성으로 그릿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가며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의 내적통제력, 성격유형, 자아탄력성 등이 영향 요인으로 확인 되고 있다[13]. 그중에서 성격이란 사람의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사고·감정·태도 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성격유형별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나 회복능력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14,15]. 성격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질 수 있지만 경쟁과 야심으로 시간에 쫓기는 성급한 성격(A type)[16]과 야망이 적고 이완되어 시간에 쫓기지 않은 성격(B type) [17]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본인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18], 학과에서는 유형별 파악을 통해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중재 방안을 적용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볼 때, 간호대학생이 겪는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이나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그릿과 성격유형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성격유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중재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성격유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하며, 성격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그릿,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격유형별 빈도 및 성격 유형 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그릿과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그릿,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6) 대상자의 그릿과 성격유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성격유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세부 선정 기준은 C지역과 K지역에 소개하는 간호학과 학생으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이며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총 135명으로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19]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예측요인(독립변수 2개와 통제변수 3개[일반적 특성 절반]의 합) 5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16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35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이 중 누락되거나 편중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130부(96.3%)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그릿

그릿은 Duckworth와 Quinn[11]이 개발한 6문항의 단축형 그릿 도구를 Song과 Lim[17]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흥미유지 3문항, 노력 지속 3문항으로 구성된 총 6문항의 도구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Duckworth와 Quinn[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3-.83이었고, Song과 Lim[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7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70이었다.

2.3.2 성격유형

성격유형은 Girdano, Everly & Dusek[16]의 Hart type A척도를 Jang과 Kang[20]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의 도구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4-40점은 A type 성격유형의 특성을 의미하며, 10-23점은 B type 성격유형의 특성을 의미한다. A type 성격유형은 경쟁적이고 야심적이며 시간에 쫓겨 서두르는 성급한 성격의 유형이며, B type 성격유형은 야망이 적고 이완되어 있으며 시간에 쫓기지 않는 성격 유형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Kim[21]의 선행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2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0이었다.

2.3.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Park[22]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대인관계 9문항, 전공만족 9문항, 전공 수월성 5문항, 대처역량 5문항, 취업준비 3문항, 학업충실도 3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2.4.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취지와 설문방법을 해당 대학의 학과장에게 설명 후 허락을 받고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온라인 설문지(구글설문지)로 진행하였다.

2.4.2 윤리적 고려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 설문지(구글설문지)에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구글 설문지 응답참여 여부에 '예', '아니오'로 표시하게 하여 '예'로 대답한 경우만 설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설문으로 진행됨을 명시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 후 유의미한 차이는 Tukey로 사후검정 하였다. 성격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간의 차이는 X^2 -test를 실시하였다.
- 2) 대상자의 그릿,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성격유형별 성격유형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그릿과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그릿,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6)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성격유형,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간호대학생으로 여자가 97명(74.6%), 남자가 33명(25.4%)이었다. 연령은 18-29세 94명(72.3%), 40세 이상 21명(16.2%), 30-39세 15명(11.5%)의 순이었고, 학년은 2학년 38명(29.2%), 1학년 34명(26.2%), 3학년 29명(22.3%), 4학년 29명(22.3%)의 순이었다. 전공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46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률 36 (27.7%), 가치 있는 직업 31명(23.8%), 부모나 주변의 권유 17명(13.1%)의 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76명(58.5%),

보통 54명(41.5%)으로 불만족은 없었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그릿 은 연령 (F=4.21, p=.02)과 전공만족도(t=3.96, p<.001), 대학생활 적응은 전공선택 동기(F=3.23, p=.03)와 전공만족도 (t=3.91,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ukey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30-39세 인 학생들은18-29세인 학생들보다 그릿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적성과 흥미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취업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대상자의 성격유형은 A type 성격 69명 (53.1%), B type 성격 61명(46.9%)으로, 대상자의 성격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그릿, 대학생활 적응 정도

대상자의 그릿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3점이었고,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은 대인관계 3.38점, 전공만족 2.00점, 전공수월성 2.85점, 대처역량 3.60점, 취업준비 2.88점, 학업충실도 3.5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Difference of grit, personality type and college life adjus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Categories	Characteristics	n(%)	Grit		Personality type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 or F (p) Tukey	A type (n=69)	B type (n=61)	X ² (p)	M±SD	t or F (p) Tukey
					n(%)	n(%)			
Gender	Male	33(25.4)	3.17±.49	-.58 (.56)	20(15.4)	13(10.0)	1.01 (.32)	3.10±.54	.64 (.52)
	Female	97(74.6)	3.24±.66		49(37.7)	48(36.9)		3.04±.48	
Age	18-29 ^a	94(72.3)	3.14±.64	4.21 (.02) b>a	48(36.9)	46(35.4)	2.88 (.24)	3.05±.50	1.45 (.24)
	30-39 ^b	15(11.5)	3.59±.59		11(8.5)	4(3.1)		3.23±.52	
	≥40 ^c	21(16.2)	3.36±.43		10(7.7)	11(8.5)		2.95±.45	
Grade	1 grade	34(26.2)	3.36±.70	.95 (.42)	21(16.2)	13(10.0)	2.16 (.54)	3.15±.52	.78 (.51)
	2 grade	38(29.2)	3.25±.59		21(16.2)	17(13.1)		3.56±.53	
	3 grade	29(22.3)	3.14±.40		13(10.0)	16(12.3)		2.96±.38	
	4 grade	29(22.3)	3.13±.73		14(10.8)	15(11.5)		3.03±.52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and interest ^a	46(35.4)	3.24±.70	1.56 (.20)	23(17.7)	23(17.7)	.49 (.92)	3.20±.51	3.23 (.03) a>b
	Employment rate ^b	36(27.7)	3.10±.58		19(14.6)	17(13.1)		2.88±.47	
	Parents and surrounding invitations ^c	17(13.1)	3.13±.39		9(6.9)	8(6.2)		2.96±.53	
	Worthwhile job ^d	31(23.8)	3.41±.61		18(13.8)	13(10.0)		3.09±.42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76(58.5)	3.40±.59	3.96 (<.001)	41(31.5)	35(26.9)	.86 (.48)	3.19±.50	3.91 (<.001)
	Moderate	54(41.5)	2.96±.57		28(21.5)	26(20.0)		2.86±.43	
	Dissatisfaction	0(0)	-		-	-		-	

Table 2. Degree of grit, personality type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130)			
Variables	Min	Max	M±SD
Grit	1.17	4.83	3.23±.62
College life adjustment	1.56	4.29	3.05±.49
Human relationship	1.11	4.89	3.38±.64
Satisfaction with major	1.00	2.78	2.00±.38
Major excellence	1.00	5.00	2.85±.38
Coping capacity	1.80	5.00	3.60±.68
Job preparation	1.00	5.00	2.88±.80
Academic fidelity	1.67	5.00	3.59±.77

3.3 성격유형별 성격유형 빈도 및 정도

대상자의 A type 성격은 69명(53.1%)으로 성격유형 정도는 27.12점 이었고, B type 성격은 61명(46.9%)으로 성격유형 정도는 18.79점 이었다<Table 3>.

Table 3. Degree and frequency by personality type

(N=130)				
Variables	n(%)	Min	Max	M±SD
A type	69(53.1)	24.0	36.0	27.12±2.74
B type	61(46.9)	12.0	23.0	18.79±3.00

3.4 성격유형에 따른 그릿과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A형 성격유형의 그릿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8점 이었고, B형 성격유형의 그릿 정도는 평균 3.16점 이었다. 또한 A형 성격유형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0점이었고, B형 성격유형의 대

Table 6. Affecting factors on college life adjustment

Variables	B	SE	β	t(p)	Collinearity	
					Tolerance	VIF
(Constant)	78.57	7.41		10.61(<.001)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						
Employment rate	-8.91	3.37	-.24	-2.65(.009)	.765	1.307
Parents and surrounding invitations	-4.64	4.38	-.09	-1.06(.29)	.797	1.255
Worthwhile job	-5.49	3.51	-.14	-1.57(.12)	.775	1.290
Major satisfaction ^b						
Satisfaction	7.20	2.92	.21	2.47(.02)	.840	1.191
Grit	1.31	.38	.29	3.43(.001)	.872	1.147

R²=.230, Adj. R²=.199, F(p)=7.41(<.001)

^aReference group: Aptitude and interest, ^bReference group: Moderate

학생할 적응 정도는 평균 3.00점이었다. A형과 B형의 성격유형에 따른 분석에서 그릿과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Difference of gri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by personality type

Personality type	Grit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p)	M±SD	t(p)
A type	3.28±.67	1.07 (.29)	3.10±.50	1.12 (.26)
B type	3.16±.54		3.00±.49	

3.5 그릿,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그릿(r=.3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Relationship of grit, personality type and college life adjustment

Variables	Grit	Personality type	College life adjustment
	r(p)	r(p)	r(p)
Grit	1		
College life adjustment	.37 (<.001)	.13 (.14)	1

3.6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전공선택 동기(더미변수)와 전공만족도(더미변수) 및 그릿을 입력방법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 확인을 위해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

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765~.872로 1.0 이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147~1.307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7.41$, $p<.001$), 입력 변수 중 전공선택 동기의 취업률($\beta=-.24$, $p=.009$), 전공만족도의 만족($\beta=.21$, $p=.02$), 그릿($\beta=.29$, $p=.001$)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동기에서 취업률로 학과를 선택한대상자는 적성과 흥미를 기준으로 선택한 대상자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에서 전공에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대상자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은 대학생활 적응을 23.0%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릿($\beta=.29$, $p=.001$)이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4. 고찰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이 병행되어 많은 양의 학업으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 주변의 권유,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입학한 학생이나 진로선택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3, 6-7).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성격유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그릿 정도는 5점 만점에 3.23점으로,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측정한 Choi와 Jeong[23]의 3.32점, Lee와 Park[7]의 3.31점보다 약간 낮았다. 학과적응, 임상실습, 과중한 학업량, 국가고시 및 간호사라는 직업에 필요한 역량 성취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그릿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4].

대상자의 성격유형 정도는 A type이 69명(53.1%)으로 27.12점, B type이 61명(46.9%)으로 18.79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A type 성격유형(24-40점)은 경쟁적이고 야심적이며 서두르는 성급한 성격이며, B type 성격유형(10-23점)은 야망이 적고 이완되어 있으며 느긋한 성격을 의미한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wag[25]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A type 성격유형이 더 많았으며, 유형별 평균 평점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3.05점으로,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한 Shin[26]의 3.79점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 적응 중 점수가 가장 높은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3.38점이었고, 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전공만족 2.00점이었다. Shin[26]의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3.77점이었으나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고, 가장 낮은 영역인 전공만족 3.48점도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전공만족도 향상이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신입생부터 전공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나이,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나이 차이에 따른 그릿을 확인한 연구가 미흡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Kim과 Kim[27]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30대의 학생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의 학생보다 그릿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0대 학생들은 타 학과 대졸자나 미취업자, 취업 후 진로변경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간호사를 향한 목표 성취 열정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공에 만족할수록 그릿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결과는 Park과 Ko[12]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와 일치하였고, Jeong과 Jeong[28]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그릿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끈기와 열정으로 일관되게 노력하며 자신이 세운 간호사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정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과 프로그램 등의 중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ark과 Ko[12]의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취업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최근 취업난으로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휴학, 자퇴 등의 중도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다[30]. 간호학과 입학 초부터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학과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신입생들에게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고,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과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그릿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Park과 Ko[12], Kim과 Kim[27], Lee, Gwon과 Kim 등[2]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그릿과 대학생활 적응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임으로써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선택 동기(취업률), 전공만족도(만족), 그릿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을 23.0%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릿이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여러 선행연구[2,7,12,27]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대학 및 학과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등의 중재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그릿의 노력지속성과 흥미일관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대학생활에 흥미를 갖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Joo, Lee와 Hwang[31]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는 대학생활 적응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동기화가 되어 있어[32]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취업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적성과 흥미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낮은 결과는 최근 취업의 용이성을 이유로 간호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고, 고교과정에서 충분한 진로탐색의 고민 없이 간호학과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지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Oh와 Kang[29]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적 접근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Kim과 Kim[27], Jang[3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조사 시점의 대상자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특성이나 상황적 조건이 유사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지길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성격유형은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격유형에 따른 대상자의 그릿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어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성격유형의 도구를 다양화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선택 동기(취업률), 전공만족도(만족), 그릿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그릿을 통해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각 학년에 따른 적응을 요구하는 요인 및 상황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고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4개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전공교육과정을 수행하며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그릿과 성격유형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중간 정도로 확인되었고,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취업률), 전공만족도(만족), 그릿은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릿은 대학생활 적응에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취업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적성과 흥미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낮은 결과는 입학 당시 전공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흥미 유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성격유형은 도구를 다양화하여 조사해 볼 것을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와 그릿을 높여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진행되어지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 J. Seo, J.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4, pp.815-824, Apr, 2021.
DOI: <https://doi.org/10.5392/KCA.2021.21.04.815>
- [2] C. Y. Lee, M. Y. Gwon, N. H. Kim, C. H. Kim, H. J. Kim, "Effects of grit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8, No.3, pp.680-688, Jun, 2021.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3.680>
- [3] S. Y. Min, "Adjustment experience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5, No.4, pp.409-419, Dec, 2006.
UCI: uci.or.kr/G704-001695.2006.15.4.008
- [4] H. D. Bhurtun, M. Azimirad, T. Saaranen, H. Turunen, "Stress and coping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an integrative review", *The Journal of Education*, Vol.58, No.5, pp.266-272, Apr, 2019.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90422-04>
- [5] E. J. Heo, E. J. Kim,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12, pp.59-69, Feb, 2021.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12.059>
- [6] M. R. Lee, H. S. Jeon,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861-8869, Dec,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2.8861>
- [7] S. J. Lee, J. Y. Park,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2, pp.269-276, Feb,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69>
- [8] G. Bono, Reil K, Hescox J. "Stress and wellbeing in urban college students in the U.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an grit and gratitude help?",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Vol.10, No.3, pp.39-57, Aug, 2020.
DOI: <https://doi.org/10.5502/ijw.v10i3.1331>
- [9]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Jun,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10] N. A. Bowman, P. L. Hill, N. Denson, R. Bronkema, "Keep on truckin' or stay the course? exploring grit dimensions as differential predictors of educational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intentions",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 Science*, Vol.6, No.6, pp.639-645, Mar, 2015.
DOI: <https://doi.org/10.1177/1948550615574300>
- [11] A. L. Duckworth, P. D. Quin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1, No.2, pp.166-174, Oct, 2009.
DOI: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12] C. S. Park, Y. J. Ko,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gri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0, pp.76-85 Oct,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0.76>
- [13] N. K. Martin, P. N. Dixon, "The effects of freshman orientation and locus of control on adjustment to college: A follow-up stud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22, No.2, pp.201-208, Feb, 1994.
DOI: <https://doi.org/10.2224/sbp.1994.22.2.201>
- [14] M. O. Yu,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haracter strength on perceived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2, Feb, pp.168-176,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2.168>
- [15] N. H. Cha, "Learning ability and stress by character type in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2, pp. 6257-6264, Feb,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2.6257>
- [16] D. A. Girdano, G. S. Everly, D. E. Dusek, *Controlling stress and tension: A holistic approach*,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90.
- [17] H. S. Song, S. H. Lim,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the grit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3, pp.322-331, Aug, 2020.
DOI: <https://doi.org/10.5977/ijkasne.2020.26.3.322>
- [18] M. Y. Mun, S. Y. Hwang, "Impact of Character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no. 8, pp. 403-418, 2016.
URL:<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6128695>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May,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0] H. K. Jang, S. G. Kang, *Stress and mental health*, Hakjisa Inc., 1996.

[21] J. K. Lee, W. J. Kim, "The effects of resilience and personality types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6, pp.100-107, Jun,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6.100>

[22] S. Y. Park, *Development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Cheonan, pp.72-74, Feb, 2017.

[23] H. J. Choi, H. R. Jeong, "The impact of grit, gratitude disposition and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70-79, Feb, 20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70>

[24] M. R. Jung, E.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pp.414-423, Jun,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6.414>

[25] H. J. Kwag,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resilience and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Daejeon, pp.25-26, Feb, 2020.

[26] E. S. Shin,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ho took blended learning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10, pp.392-403, Oct, 2022. DOI: <https://doi.org/10.5392/JKCA.2022.22.10.392>

[27] H. J. Kim, J. H.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2, pp.152-162, Dec,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2.152>

[28] M. R. Jeong, E.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student on grit",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pp.414-423, Jul,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6.414>

[29] E. J. Oh, J. H. Kong,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8, No.3, pp.245-259, Jul, 2017. DOI: <https://doi.org/10.22143/HSS21.8.3.14>

[30] E. S. Park, K. H. Kim, "Effects of the factors of academic suspension and college adjustment on the intention of college freshmen's school dropou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10, pp.361-384, Oct, 2016. DOI: <https://dx.doi.org/10.21509/KJYS.2016.10.23.10.361>

[31] M. K. Joo, W. J. Lee, I. Y. Hwang, "Impa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to major satisfaction and campus-life adaptation of non-traditional learner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1,

No.1, pp.47-58, Sep, 2017.

[32] E. J. Jo, J. H. Park, K. M. Lim,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0, pp.329-337, Oct,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10.329>

[33] H. J. Jang, "Effects of personality type, academic stress and stress coping methods on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7, No.4, pp.969-985, Aug, 2020.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0.37.4.969>

유 미 옥(Mi Ok Yu)

[정회원]



- 201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10월 ~ 현재 : 송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소아청소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